

2018.1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8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8.11.27	대전MBC 대회의실	7/11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김경희, 정대식, 이용원, 김은주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0	5	-	-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1	4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11월
보도	단신뉴스를 줄이고 기획뉴스 발굴 계속	보도국 기획뉴스 ‘도서관은 살아있다’ 시리즈로 매주 월, 화, 수 뉴스데스크 시간에 방송	11월
보도	보도제작물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분석을	“귀농·귀촌 인구 증가”(11/17), “대전 자치구, 야구장유치 경합(11/25), ”치명적 미세먼지 이렇게 퍼진다“(11/28)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뉴스제작	11월
보도	대전·충남 지역 스쿨미투 후속보도 필요	“대전·충남 지역 스쿨미투 11명 징계”(11/21) 등 보도	11월
보도	익명성이 필요한 뉴스 내용 중 인물촬영 시 모자이크 처리	“대전·세종·충남 수능 부정행위자 21명 적발”(11/16) “중국산 김치 국산둔감”(11/20) 등 인물 모자이크 처리	11월
보도	대전MBC 뉴스를 다양한 매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 젊은 시청자를 흡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에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전달	연중
보도	기획보도 “도서관은 살아있다”편에 도서관의 인성교육과 관련 인문학적 프로그램 소개를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11/12)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합성어로 세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복합문화기관으로 탈바꿈 소개	11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토론의 방향’ 불확실할 때가 있어 주제의식이 분명해야	“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권한인가 길들이기인가”(11/4) “과학도시 대전 위상 흔들, 명성 회복하려면?(11/25) 제작	11월
보도	사건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현장에서 방향과 대안을 제시	“금강보 개방”(11/15)-금강 세종보 현장에서 전문가 대안제시, “태양광시설 열폭주”(11/22)-천안 목천읍 현장에서 취재 대안 제시 등	11월
교양	충남 지역을 소재로 방송 시 자연재해, 사건사고 아닌 훈훈한 미담도 소개할	<현장속으로> 따뜻한 나눔의 행복 김장나누기-세종시 주부들 소개(11/28) 등	11월

교양	공동체복원을 키워드로 한 교양물 제작 필요	대전MBC 특별기획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목동 작은 도서관 ‘마미뜰’ 등을 비롯해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지역을 변화시키려는 모습 등 소개.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5분에 5분 방영	11월
----	-------------------------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8. 5. 01.~2019.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올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김경희, 권부남, 정대식, 이용원, 김종남, 양흥모, 양선희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1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과학도시 대전 위상 흔들” 그리고 뉴스에서 “대전 일자리 없어 청년 50% 이상 떠난다” 등 우울한 내용을 접했다.</p> <p>대덕연구단지를 품에 안고 있는 대전시는 타도시에 비해 4차산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제반여건이 좋다. 특집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과학도시 대전의 역량을 조명하여 신성장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함진호).</p>	<p>대덕특구를 포함한 한국 과학계 그리고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도전 등 다양한 기획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수소시대 개막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도 기획중이다.</p>	○		
교양	<p>대전MBC 특별기획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를 시청하였다. 시민 스스로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을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시민이 주인 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목동 작은 도서관 ‘마미뜰’ 등을 비롯해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지역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보니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느낄 수 있었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다만 솔루션을 추상적 바람 보다는 실질적 변화로 일상적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영상으로 제시하는 점이 다소 약해 이 부분을 보강해 주길 바란다(송길현)</p>	<p>우선 좋은 평가에 감사드린다.</p> <p>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4분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제작을 하는 상황이나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p>		○	
교양	<p>시사플러스 “벼랑 끝 농촌, 희생의 길은 있는가”편에서 농촌의 현실을 다양한 구성으로 잘 보여주었다. 마음의 울림 있었다. 농가기본소득제, 농가경영등록제 등 그 의미도 잘 짚어주었다. 프로그램에 소개한 로컬푸드, 청년 농부 등 소재는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 주길 바란다. 대형마트 등은 지역경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지역 농산물이 살아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김종남).</p>	<p>평가에 감사드린다.</p> <p>지역 사회의 문제에 더 천착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매진하겠다.</p>	○		
교양	<p>시대변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역량 변화로 지방자치, 민주시민, 4차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획프로그램을 만나고 싶다(김종남).</p>	<p>늘 고민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제작 인력의 부족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p>		○	

<p>보도</p>	<p>“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11/5, 11/12, 11/13 연이어 뉴스투데이를 통해 보도하였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일반시민들의 불법적 사용을 지적해 주고 있어 심분 의제기능을 잘 살려주었다. 좋은 뉴스라고 본다(양선희)</p>	<p>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정책 시행과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p>	<p>○</p>	
<p>보도</p>	<p>대학수능 시험이 있는 날 현장 라이브로 수능시험 고시장을 연결하였다.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기대 하였지만 화면에는 그렇지 못했다. 고사장인 학교는 단순히 배경 화면으로 머물렀고 수험생 학생들 모습도 화면에 잘 나오지 않은 듯하다. 뉴스 구성이 치밀하지 못하다(양선희).</p>	<p>수능 고사장 촬영은 교육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무엇보다 수험생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고사장 안까지 들어가서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일부 고사장에서는 소음을 우려해 방송사 중계차량의 교내 진입까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p>	<p>○</p>	
<p>보도</p>	<p>"시사토론M"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시청자 입장에서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다른 채널로 돌리지 않고 계속 시청하기는 어렵다. 토론 위주다 보니 몰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시청자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 영상에 적절하게 자막을 삽입하길 권유한다. 질문과 답변을 시의적절하게 자막처리를 하면 그나마 단조로움을 벗어나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양선희).</p>	<p>새해 시사토론은 대폭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주목도와 함께 시의성, 공명성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획이 완성단계에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p>	<p>○</p>	
<p>보도</p>	<p>뉴스투데이 코너인 “투데이 핫무비”에서는 주로 국내 상영되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 우리지역의 문화·예술·공연 등을 소개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양선희).</p>	<p>제작에 참고하겠다.</p>	<p>○</p>	
<p>보도</p>	<p>도서관 기획 뉴스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어 1회성 뉴스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 시리즈를 묶어 시간을 확대해 특집 형식으로 별도로 다시 한 번 방송해 주길 바란다(양선희)</p>	<p>뉴스 제작 및 편성에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다. 내년에도 지역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도기획물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p>	<p>○</p>	
<p>보도</p>	<p>“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심폐소생술로 아이를 구해 화제”라는 제목으로 보도(11/22)를 하였는데 이 뉴스에서 사용한 영상은 취재화면이 아닌 CCTV 영상이었다. 아쉽게도 아이를 구하는 장면이 없었다. 버스기사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 이외에 아이구출-적절한 삽화-등을 사용했으면 영상부족의 아쉬움을 극복했으리라고 본다(양선희)</p>	<p>기사 화면 출처는 대전시가 제공한 시내버스 회사의 블랙박스 영상 녹화 자료로, 차가 접근할 당시에는 어린이가 보였으나 정차 및 CPR시에는 해당 장면이 현수막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블랙박스 화면을 취재진이 확보한 것인데, 어린이와 보호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추가 취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p>	<p>○</p>	

<p>보도</p>	<p>중앙방송에서 “팩트체크”란을 고정 편성하여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있다. 가짜뉴스의 오남용, 이로 인해 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유통되고 있는 뉴스의 사실확인을 대전MBC 뉴스에서도 시행해보면 좋겠다(양흥모).</p>	<p>대전MBC는 가짜뉴스 차단과 오보 방지 등을 위해 전 취재 과정에서 기자들이 철저한 팩트체킹을 수행하고 있다.</p>	<p>○</p>		
<p>보도</p>	<p>월평공원은 대전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2020년 7월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대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비와 민간업체의 재원을 투입해 공원을 개발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있어 찬반이 팽팽하다. 공론화 과정에 이런저런 갈등이 얽혀있다. 방송에서 이 문제가 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12월에는 정책결정 워크숍도 예정되어 있다. 갈등의 쟁점, 극복방안 등을 심층취재 하여 시민들에게 잘 전달 해주길 바란다(양흥모).</p>	<p>대전MBC는 데일리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월평공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도 별도의 이슈 항목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2Fe7KOYO3Vs3w2H6wnuTotBIT55iZvTt)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p>	<p>○</p>		
<p>보도</p>	<p>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청년이 떠나는 지역, 문제와 해법은?” 라는 주제로 청년실업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패널들 모두 남성이라서 아쉬움을 가졌다. 패널(현선무 과장) 뒷 배경화면에 사람 얼굴을 띄어놓아 TV모니터 상에는 패널얼굴과 배경화면의 사람이 겹쳐 있는 듯 보였다(권부남).</p>	<p>화면상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겠다. 또한 관련 주제에 따라 패널들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다</p>	<p>○</p>		
<p>교양</p>	<p>시사플러스에서 <시장으로 간 청년들, 생존의 조건은?>이라는 타이틀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상 청년상인들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많지 않았다. 청년들 이야기를 더 담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권부남).</p>	<p>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더 매진하도록 하겠다.</p>	<p>○</p>		

<p>교양</p>	<p>작지만 강한 나라인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발전의 원동력은 상호신뢰와 산업발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적 발전은 구성원 상호간 신뢰가 쌓이면 더욱 시너지효과를 유발한다. 지역사회 전반 신뢰 회복을 구축할 수 있게끔 방송에서 앞장서 주기 바란다(신상철).</p>	<p>관련해 시민사회의 중요성, 시민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아이템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더 매진하겠다.</p>	<p>○</p>		
------------------	--	--	----------	--	--